

## ‘3강구도’ 나주·화순 선거구, 내년 총선서 누가 웃을까

김병원 농협회장 합류...신정훈·손금주와 각축전 예고

자타 공인 농업·농촌 전문가들...화순지역 표심도 변수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합류로 3강구도로 변모한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가 내년 21대 총선의 최대 관심지역구 가운데 한 곳으로 떠올랐다.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농촌 전문가들로 지역 정치권조차 우열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여서 불과 5개월여 남은 본선까지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전남대에서 열린 용봉포럼 초청특강 뒤 ‘뉴스1’과 만난 김병원 농협회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지역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특강 말미에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도 김 회장은 “혹시 내년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이라는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총선 출마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나주·화순 지역구의 총선거도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과 손금주 무소속 국회의원의 재대결 구도로 압축된 상황이었다.

앞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손금주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신정훈-손금주 양강구도로 흐르던 선거구에도 김병원 회장이 가세하면서 내년 총선 결과를 쉽

사리 예측하기는 어렵게 됐다.

우선 본선보다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과연 누가 공천권을 따낼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라 당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김병원 회장은 현재 소속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민주당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 역시 국민의당 분당사태로 지난 2018년 12월 민주당 입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지만 변수는 남은 상황이다.

농업·농촌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들의 경력 역시 비교불



(왼쪽부터) 김병원, 신정훈, 손금주

입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대통령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지냈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주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병원 농협회장이 가세하면 지역의 총선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와 화순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이후 단 한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화순지역의 표심을 누가 확보하느냐도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10월말 기준 나주시 인구는 11만4500명, 화순군 인구는 6만2800명이다.

최은복 기자

## 곡성군 사과 및 토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도 으뜸

전남농업기술원 주관 우수 원예작물 품질평가회서 각각 최우수상·특별상 수상



곡성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토란이 전남남도 농산물 품질평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며 우수 농산물로 인정받았다.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무

안군 남악 신도시 소재 농협전남본부에서 남도원예작물마당 우수 원예작물 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과수, 채소, 화훼, 버섯 등 31개 작목 92점

의 농산물을 출품해 경쟁을 벌였다.

곡성군은 2개 농가에서 각각 사과와 토란을 출품했다.

평가는 전남남도 원예연구소 연구원 및 유통·경영분야 전문가 등 9명의 심사위원 심사와 평가회에 참석한 농민들의 시식 등을 통해 진행했으며, 최종 15점의 우수 원예작물을 선정했다.

곡성군은 옥과면 서동석 농가가 출품한 미안파 부사 사과가 최우수상, 죽곡면 기동동 농가에서 출품한 토종 토란이 전남도지사 특별상을 수상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무안군, 상습침수·가뭄 피해 ‘해결’

해제면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 141억원 확정

무안군은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와 가뭄으로 인한 염해피해를 겪고 있는 해제면 금산간척지 풍림면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수 차례 방문 협의하는 등 각고한 노력 끝에 43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해제면 금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총 141억원의 사업비를 최종 승인받았다.

배수개선사업은 간척농지 특유의 반복되는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 및 영농기반을 정비할 하는 사업으로 농경지의 침수예방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와 안전 영농을 위한 사

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금번 사업추진으로 수혜 받을 면적은 해제 금산간척지 일원 164.7ha이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배수장 3개소, 내배수로 신설 3.1km, 배수로 확장 3.43km, 매립(복토) 37.2ha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전남도, 2020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공모

전남도가 12월5일까지 2020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양파, 대파, 배, 무화과 등의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국 18개소를 선정하며 경영체별로 2년간 10억원(1년차 1억5000원, 2년차 8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율은 보조금 90%, 자부담 10%다.

지원 대상은 채소류, 과수, 특용작물 등 각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다.

허성은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